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2015년 2/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발행인 : 한 상 완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2015년 2/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Executive Summary .....	i
1.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종합 평가 .....	1
2. 특징 분석 및 항목별 평가력 .....	2
3. 시사점 .....	5

**<요 약>****■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총괄)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는 2014년 4/4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2014년 4/4분기 44.7에서 33.6으로 하락,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전환되었다.

**(2015년 1/4분기 정량분석지수 및 전문가평가지수)** 평화지수는 정량분석지수와 전문가평가지수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대북지원, 남북인적교류 등 실적치에 기초한 객관적인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50.4에서 40.5로 9.8p 하락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39.0에서 26.7로 12.3p 하락했다.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도 51.8에서 40.2로 11.6p 하락했으나, 여전히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라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다.

**(시사점)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남북 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인도적 사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광복 70주년 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체육·문화 분야에 관한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인만큼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조 하에 DMZ평화공원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조금씩이나마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부문의 남북경협 사업은 물론 다자간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기추진 경협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을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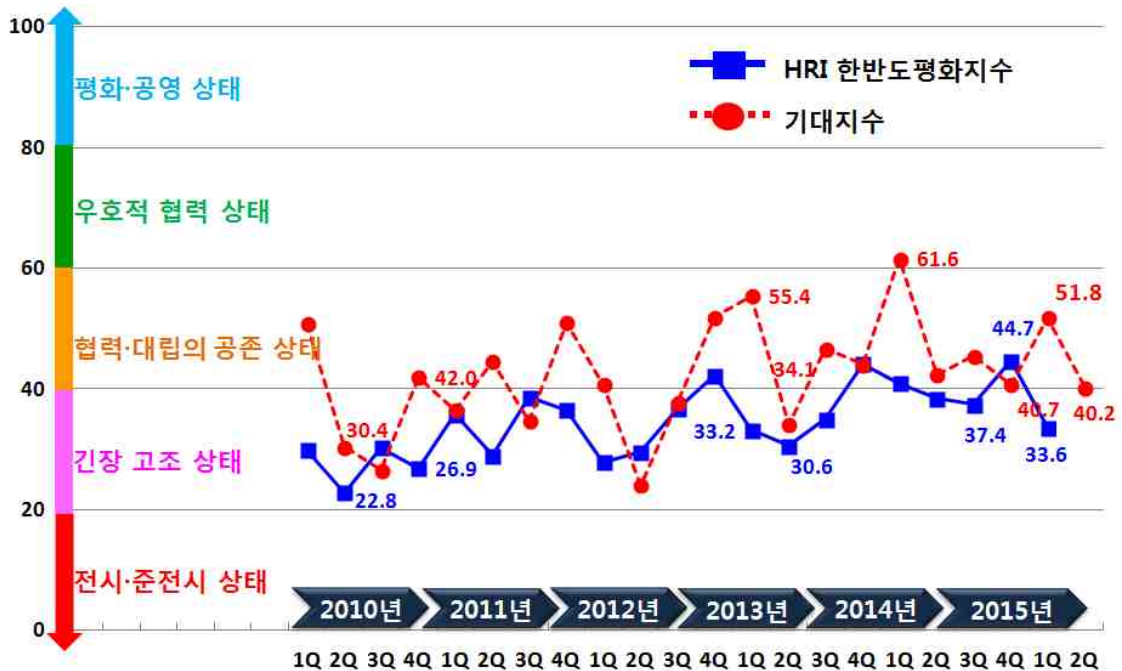
### 1. 2015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종합 평가1)

○ (종합)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평화지수)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3.6으로 2014년 4/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음  
 · 지난 분기(2014년 4/4분기) 평화지수는 1년 만에 반등하여 40p대로 진입했으나, 1분기 만에 전기대비 11.1p 하락

- (기대지수)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대비 11.6p 하락한 40.2를 기록

< 2010~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 추이 >



주 : 이번 평화지수는 보정작업으로 인해 기 발표 평화지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

1)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5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알외교안보 전문가 6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 특징 분석 및 항목별 평가

○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수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뉘는데 2015년 1/4분기에는 이들 모두 하락하였음

- 2015년 1/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6.7, 정량분석지수는 40.5를 기록, 지난 분기에 비해 모두 하락

·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에는 39.0으로 7.7p 상승했으나, 이번 분기에는 12.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2/4분기 기대지수는 40.2로 2014년 4/4분기 51.8에 비해 하락

< 2013~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 부문별 추이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15. 1분기	33.6 (▽11.1)	26.7 (▽12.3)	40.5 (▽9.9)	45.7 (▽1.2)	35.4 (▽18.5)	40.2 (▽11.6)
'14. 4분기	44.7 (▲7.3)	39.0 (▲7.7)	50.4 (▲6.8)	46.9 (▲0.3)	53.8 (▲13.1)	51.8 (▲11.1)
'14. 3분기	37.4 (▽1.0)	31.3 (▽1.8)	43.5 (▽0.3)	46.3 (▽0.5)	40.8 (0.0)	40.7 (▽4.8)
'14. 2분기	38.4 (▽2.4)	33.1 (▲1.7)	43.8 (▽6.6)	46.8 (▽5.5)	40.8 (▽7.7)	45.5 (▲3.2)
'14. 1분기	40.9 (▽3.3)	31.4 (▽14.2)	50.4 (▲7.6)	52.3 (▲5.2)	48.5 (▲10.0)	42.3 (▽19.3)
'13. 4분기	44.2 (▲9.2)	45.6 (▲8.9)	42.8 (▲9.5)	47.1 (▲0.6)	38.5 (▲18.5)	61.6 (▲17.5)
'13. 3분기	35.0 (▲4.4)	36.7 (▲3.9)	33.3 (▲4.8)	46.5 (▲16.6)	20.0 (▽6.9)	44.1 (▽2.6)
'13. 2분기	30.6 (▽2.6)	32.8 (▲6.7)	28.4 (▽11.8)	29.9 (▽3.6)	26.9 (▽20.0)	46.7 (▲12.6)
'13. 1분기	33.2 (▽9.1)	26.1 (▽7.8)	40.2 (▽10.4)	33.5 (▽14.6)	46.9 (▽6.2)	34.1 (▽21.3)

주 : 이번 평화지수는 보정작업으로 인해 기 발표 평화지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

(1) 전문가평가지수 (2014년 4/4분기 : 39.0 → 2015년 1/4분기 : 26.7)

- 총 69명의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음
- 1/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대비 12.3p 하락한 26.7을 기록

(2) 정량분석지수 (2014년 4/4분기 : 50.4 → 1/4분기 : 40.5)

- 2015년 1/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50.4에서 9.9p 하락한 40.5를 기록

< 2010~2015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주 : 이번 평화지수는 보정작업으로 인해 기 발표 평화지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

① 이벤트지수 (2014년 4/4분기 : 46.9 → 2015년 1/4분기 : 45.7)

- 이벤트지수는 46.9에서 45.7로 1.2p 하락

② 교류지수 (2014년 4/4분기 : 53.8 → 2015년 1/4분기 : 35.4)

- 교류지수는 53.8에서 35.4로 18.4p 하락

< 2010~2015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번 평화지수는 보정작업으로 인해 기 발표 평화지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



### 3. 시사점

- 첫째,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 둘째,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남북 경협,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인도적 사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광복 70주년 행사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체육·문화 분야 등에 관한 교류가 중요
  -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인만큼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기조하에 DMZ평화공원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조금씩이나마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민간 부문의 남북경협 사업은 물론 다자간 협력사업 강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추진 남북경협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노력을 측면 지원
  -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연구위원 (02-2072-6223, csk01@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sup>2)</sup>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2)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임.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부록 2>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회·문화·인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